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 사르트르와 김춘수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2016***** 국어국문학과 이은영

<목차>

I. 들어가며.....	1p
II. 실존주의와 꽃	
1.1.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2p
1.2. 김춘수의 꽃.....	3p
III. 나오며.....	5p
IV. 참고자료	

I. 들어가며

1930년, 나치즘과 파시즘에 몸살과 함께 혼란의 시기를 보내던 프랑스 속에 한 지식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와 1945년 해방과 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며 나라의 혼란 속 그 한 가운데 서 있던 김춘수 시인(金春洙, 1922~2004)은 둘 모두 격변하는 상황 속의 지식인이라는 위치에 서 있었으며 실존주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사르트르로부터 시작된 실존주의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철학자이며 동시에 작가였던 그의 직업에 따라 실존주의가 가장 잘 들어난 그의 작품 「구토」와 함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한국의 시인 김춘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김춘수 시인의 시 「꽃」 등의 작품으로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실존주의를 통해 당시 각각 두 인물이 겪고 있던 혼돈의 배경상황에 대해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자 했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표는 이전까지 이해하기 어렵고 체감하기에 낯설었던 실존주의를 보다 우리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익숙한 한국의 작가와 작품으로써 그 이해를 돕고자 함에 있다.

존재에 대한 것, 대자와 즉자, 무(無)의식 등을 말함에 있어서 누구는 구토라는 행위를 통해 말하고 있으며 다른 누구는 이름을 명명하는 행위를 통해 이를 말하고 있다.

비록 표현하는 방식이 상이하나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신념인 실존주의가 두 인물의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II의 1.1.에서는 우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소개하며 비록 실존주의 확립 이전의 작품이지만 확고한 태도를 보였던 작품¹⁾ 「구토」

1) 장 폴 사르트르, 『구토』, 강명희 역, 하서출판사, 2004, 322쪽.

의 실존주의적 면모가 1.2.에서 김춘수 시인의 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실존주의와 꽃

1.1.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1939~1944년 사이 동안 프랑스는 여러 전쟁과 독일의 점령 통치에 의해 인식에 대한 변화가 활발했던 때였다. 이 가운데 장 폴 사르트르는 참여윤리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이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작가는 자기의 시대와 연관되어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친다. 침묵도 역시 그러하다.’²⁾ 는 말로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던 1940년대와 달리 1930년대의 그는 자족적이며 자기생각에 열중한 소위 무책임의 시기에 살고 있었다. 이 당시의 그와 그 친구들은 선량한 양심과 모순의 감정이 없는 독립적인 비판자의 태도를 취했으며, 자기만족적인 부르주아를 비판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러한 부르주아적 질서 속에서 자랐고 보호 받았던 매우 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³⁾ 그들은 이러한 상징적 반항에 있어서 자율이 일반적 원칙이라 말했으나 그들의 물음은 어떠한 행동에 있어 이는 자기만족을 넘는 봉사인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정 자유인가 하는 곳에 도달한다.⁴⁾

이러한 물음이 중심이 되어 가장 잘 들어난 것이 그가 1938년에 간행한 소설 『구토』이다. 당시 그는 인간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는 모두 “우연적인” 것이며 높은 계획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내적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를 기반으로 한 이 소설은 로캥탱이라는 한 고독한 지식인이 실존적 의식에 눈뜨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다.⁶⁾ 그에게 ‘구토’란 나의 존재와 사물 존재가 지닌 우연성의 경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 근거 없음에 대한 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구토는 ‘불안’과 연관된다. 이에 사르트르는 불안이 인간 스스로의 자유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하는 계기라 말한다.⁷⁾ 점차 순전한 물질주의와 자연의 의미 없는 범람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끝내 그는 자신의 손조차 활성이 없는 물체로서 지각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의 돌이나 나무보다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⁸⁾ 다시 말하면, 사물과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존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삶에는 하등의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무상’을 깨달았을 때 생기는 당혹과 의식의 뒤엎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토’인 셈이다.⁹⁾ 그리고 로캥탱은 자신이 이러한 삶의 공허함을 지각하는 것에 비해 다른 부빌의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르트르는 그러한 로캥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모호한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와 같은 선민의식이 그의 초연함을 정당화 시킬 수 있었다.¹⁰⁾

2) 제임스 D.윌킨슨, 『지식인과 저항』, 이인호역, 문학과 지성사, 1992, 52쪽.

3) 제임스 D.윌킨슨, Ibid, 59~60쪽.

4) 제임스 D.윌킨슨, Ibid.

5) 제임스 D.윌킨슨, Ibid, 61쪽.

6) 장 폴 사르트르, op.cit, 322쪽.

7) 조진희, 「구토체험과 구원의 모색」,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0, 5~6쪽.

8) 제임스 D.윌킨슨, op.cit, 61쪽.

9) 장 폴 사르트르, op.cit, 323쪽.

10) 제임스 D.윌킨슨, op.cit, 61~62쪽.

하지만 이러한 그의 초연함은 제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쟁 속 일개 병사로의 참여와 8개월간의 독일군 포로수용소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앞서 말한 참여윤리의 기반이 생긴 것이다. 연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상황을 떠맡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의 변화는 1943년 출간된 『존재와 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여기서 인식체계를 즉자와 대자로 나뉘었으며 탐구방식으로는 내성적이고 자기 분석적인 방식을 채택한다. 우리가 최고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적자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로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¹⁾ 이 속에서 기둥이 역할이 되는 것은 그의 인식체계 즉, 즉자와 대자이다.

이러한 인식체계가 그의 실존주의 전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선, 즉자는 그것 자체에서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를 뜻하며¹²⁾ 이에 반해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대자는 “어떤 존재하는 것의 의식이다.”라는 구조를 갖는 즉, 대상을 향하는 이러한 의식이 동시에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대자는 대자가 대상을 지향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대상을 자기가 아니라 부정하는 작용인 무화(無化)를 통해 성립한다.¹³⁾ 이러한 대자는 주로 인간을 상징하는데 사르트르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이는 곧 인간의 본질이 자유이며 로캥탱이 느꼈던 것과 같이 그 자유 속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본질이 만들어지고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사르트르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인간은 모든 선택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심지어 침묵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즉자(in itself)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 그 예인데,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든 의자로 만들었기에 나무는 의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부정(무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면 대자(for itself)는 자신에게 주어진 틀을 부정하고 무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선택하고자하는 지향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1.2. 김춘수의 꽃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어떻게 김춘수 시인의 시 속에 녹아들었을까. 우선, 그의 대표작인 『꽃』에서 그 면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11) 제임스 D.윌킨슨, Ibid, 57~59쪽.

12) 기다 겐 외, 『현상학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b, 2011

13) 고영복, 『사상사개설』, 사회문화연구소, 1996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 「꽃」 전문¹⁴⁾

당시 이 시는 그의 초기시를 대표하는 시로 존재의 탐구라는 현대시의 요청에 충실하였다.¹⁵⁾ 니체에 의해 ‘신은 죽었다’고 관념적이고도 내면적이며 형이상적인 존재가 추방된 후 인류는 실존적 존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¹⁶⁾ 여기서의 이상적인 인간이란 인간을 초월한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겨내는 것이었다. 이는 사르트르가 지향하던 대자의 무화(無化)와 같다.¹⁷⁾ 위 시에서도 이와 같은 대자와 즉자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단순히 나타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존재의 즉자성을 대자성으로 극복, 존재의 필연성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현대시의 요청에 철저히 임하였다.¹⁸⁾

이는 그 해석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1연에서 꽃을 꽃이라 명명하기 전 그것은 다만 우연히 피었다 지는 이름이 없는 사물에 불과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얻지 못한 존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우연성에 ‘꽃’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줌으로써 꽃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결과 존재의 이유가 없던 존재는 꽃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즉 즉자존재이었던 기존의 것을 그 대상을 인식하고 명명하기를 통해 대자존재로 바꾼 것이 된다.

이러한 이치는 다시 그 다음연인 2연에서 동일성 추구라는 현대문학이 추구하던 가치로 이어진다. 꽃과 화자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닌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합일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즉자존재가 되는 단독자의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존재와 관계를 갖게 되고 이후 동일성을 추구하게 됨을 말한다. 비단, 꽃의 즉자성만이 아니라 화자가 갖고 있던 즉자성마저도 서로를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며 동일성을 획득하고 이는 서로에게 대자성을 부여해 준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다시 김춘수 시인이 바라본 당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불안이나 위기 등을 극복할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미래사, 1991, 55쪽.

15) 김춘수 외, 『한국의 문체시·명시 해설과 감상』, 자유지성사, 1998, 219쪽.

16) 김춘수, Ibid.

17) 김춘수, Ibid. 참조.

18) 김춘수, Ibid, 219쪽.

그리고 뒤이은 3연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다. 화자가 무명의 사물에 꽃이라는 명명을 한 후 그 사물이 즉자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화자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명명되어 필연적인 존재, 대자적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즉자성을 극복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선택을 하는 대자존재로 향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자 도전인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만의 극복이 아닌 모든 인류의 극복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의 마지막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들은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구절을 통해 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김춘수 시인은 당시 현대인들을 즉자성으로 인해 단독자가 되어 타인과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시인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란 존재간의 연결고리로, 꽃과 나, 즉자와 대자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합일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사르트르의 로캥탱이 느꼈던 ‘구토’의 원인에 대한 해결로, 존재에 대한 허무와 자유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그러한 ‘의미’를 통해 극복됨을 그린 것이다.¹⁹⁾

Ⅲ. 나오며

이처럼 본고에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통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자하였다. 사르트르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창궐하는 1930년대의 프랑스의 지식인이었고 김춘수시인은 조국의 해방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국의 지식인이었다. 마치 그들은 칼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듯 보였고 그 속에서 그들은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 나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인식체계를 즉자와 대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사르트르는 소설 「구토」 속 로캥탱의 구역질로 그 인식을 표현하였고, 김춘수는 시 「꽃」에서 명명하기를 통하여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발전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정해진 사물과 같은 즉자적인 존재와 달리 모든 인간존재는 텅 빈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무신론으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물과 달리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모든 행동과 결과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말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고로 그는 참여 윤리를 강조했으며 무책임도 책임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즉자와 대자의 구분을 하여 끊임없이 무화를 통한 대자적 존재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문학은 ‘앙가주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작가가 언어를 통해 작품으로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에서도 그는 참여 윤리를 강조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것이다.

이와 다르게 김춘수의 시 「꽃」에서는 사르트르와 같이 대상에 대해 즉자와 대자의 구분이 있으나 명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즉자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단순히 벗어나기에 그치지 않고 즉자와 대자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이를 서로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소외되고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는데 이는 인간의 대자적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사물을 즉자적인 존재로 정했던 사르트르와 달리 소외된 현대인을 단독자로 여기며 즉자의 존재로

19) 김춘수, Ibid, 220~22쪽. 참조.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르트르가 무화하고 선택하는 대자의 존재로서의 사람을 바라보며 책임의 윤리를 강조했다면 김춘수는 보다 즉자와 대자간의 관계, 소외된 사람들 간의 화해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게다가 '양가주망'을 주장하며 문학도 책임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던 사르트르와 달리 김춘수 시인은 참여문학의 강조보단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에 대해 집중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사르트르와 김춘수, 둘이 표현한 실존주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고의 제목인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것처럼 다소 심오하고 낯설게 다가온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우리에게 친숙한 시, 「꽃」 통해 그와 유사한 관계를 찾으며 진입장벽을 낮추고자하였고 그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둔다.

IV. 참고자료

참고서적

1.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미래사, 1991
2. 김춘수 외, 『한국의 문제시·명시 해설과 감상』, 자유지성사, 1998
3. 장 폴 사르트르, 『구토』, 강명희 역, 하서출판사
4. 제임스 D.윌킨슨, 『지식인과 저항』, 이인호역, 문학과 지성사, 1992

참고문헌

1. 조진희, 「구토체험과 구원의 모색」,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0

웹사이트 참고문헌

1. 고영복, 『사상사개설』, 사회문화연구소, 1996
2. 기다 겐 외, 『현상학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b, 2011